

중·고령자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엄사랑¹, 신혜리², 김영선^{3*}

¹경희대학교 노인학과 박사수료, ²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객원교수, ³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고령서비스-테크 융합전공 부교수

The Effect of Onlin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Sa-Rang Um¹, Hye-Ri Shin², Young-Sun Kim^{3*}

¹Ph. D. Candidate, Dept. of Gerontology, Kyung Hee University,

²Ph.D, Dept. of Gerontology, Kyung Hee University

³Professor, Dept. of Gerontology, AgeTech-Service Convergence Major, Kyunghe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PC, 모바일)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집한 '2017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2,300명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1,488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PC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 교육과 사회적 지지 증진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지지를 함께 활용하여 효과적인 삶의 만족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사회관계서비스 활용도를 하나로 측정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모바일과 PC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은 도구를 선별해내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중·고령자,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PC, mobile) and life satisfaction for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or this purpose, the '2017 Digital Divide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used, and among 2,300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ged 55 or older, 1,488 people using the Internet were selected as the final analysis target. Then,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verified in the between onlin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it was verified that higher levels of mobile-based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lso,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tilization of mobile-based social relations service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utilization of PC-based social relations services did not show to affect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connection between mobile-based social relationship service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promotion education for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addition,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measuring the use of online social relations services as one, and selects tools that are practically effective by dividing them into mobile and PC.

Key Words : Middle-aged and Older Adult, Onlin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Mobile, PC,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3A2075402)

*Corresponding Author : Young-Sun Kim(ysunkim@khu.ac.kr)

Received June 22, 2020

Revised March 5, 2021

Accepted March 20,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1. 서론

지능 정보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또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는 만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1].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모바일 메신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사회 관계망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2].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를 통해 물리적인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새롭게 구축할 수 있기에[3], 온라인 사회관계서비스의 활발한 활동은 사회적 지지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4,5].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주로 10-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젊은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6]. 하지만 중·고령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에 최대한 머무르기를 세계적으로 권장[7]되고 있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8]이기에 온라인을 통한 사회관계 서비스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임에 틀림 없다.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가 사회적지지 증가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2,5,9-10].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중·고령자의 사회적 소외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국가 이웃모니터링 활동 제도의 지원을 받은 WhatsApp이나 Nextdoor App을 통한 온라인 사회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7].

이와 같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의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힘들기에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PC와 모바일 구분 없이 하나의 기기로 살펴 보거나 모바일이 상용화되면서 모바일만 초점을 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PC와 모바일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5,9-10].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접

근성이 높은 모바일 기기가 PC기보다 활용도가 높지만, PC는 화면 및 글씨크기 등으로 고령자가 사용하기 더 편한 기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PC 및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와 삶의 만족도

2.1.1 삶의 만족도

중·고령자는 은퇴, 역할 및 사회관계의 변화, 신체적 기능의 감퇴 등과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데,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15~19세)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졌으며 55세 이후의 연령집단은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에 다양한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거나 증진시키는 요인을 검증하였다[13-17]. 구체적으로 Henchoz 외(2017)는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경제적 상태 등이 삶의 만족도의 예측요인임을 규명하였다[17]. 유태균과 반정호(2012)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종단적으로 검증한 결과 활발한 사회참여, 미래에 대한 기대감, 고령친화적인 정책 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14]. 전명진과 문성원(2016)은 배우자 관계 및 자녀 관계와의 만족도, 사회활동, 주거환경, 건강 및 경제상태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15]. 위와 같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9-10, 18, 19].

2.1.2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중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존의 사회관계 뿐 아니

라 새로운 관계망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예-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카페, 블로그 등)를 의미한다[2]. 사람은 삶 속에서 다양한 타인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웃, 사회활동, 직장동료 등 오프라인에서 상호작용하는 것 뿐 아니라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물리적인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0]. 또한, 다양한 기기(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를 통한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의 이용 증가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까지 미치는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2,5,9-10].

2.1.3 선행연구

구체적으로 기기(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를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Valenzuela 외(2009)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페이스북이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Facebook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국내연구로 강보라 외(2014)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를 포함하는 정보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활발한 정보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다음으로 디지털 기기가 모바일로 보편화 되면서 모바일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해짐과 함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회관계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 일부 보고되었다. Narkwilai 외(2015)는 태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의 수용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행동 의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국내연구로 라종민과 한희정(2015)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종류와 삶의 만족도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셜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2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와 사회적지지

2.2.1 사회적 지지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 감소, 역할 상실, 사회적 관계

축소 등 생애주기적으로 상실감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2]. 특히, 노인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물리적 제약없이 사회적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으로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다[4, 5]. 즉,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물리적 제한 없이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미 구축된 사회관계 뿐 아니라 관심주제에 따라 혹은 활동에 따라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3]. 실제로 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과 같은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며 관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4, 5, 22-24]

2.2.2 선행연구

구체적으로 Best와 Krueger(2006)은 온라인 기반 상호작용과 사회 자본의 관계를 검증하였다[4]. 그 결과, 온라인 기반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Valkenburg 외(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를 활발하게 이용할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을 보유하며, 자존감과 정서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Ellison 외(2007)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페이스북 사용과 사회자본이 강력한 연관성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6], Pecino 외(2012)는 활동적인 노인과 모바일 폰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모바일 폰으로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윤해진(2009)은 휴대폰의 상호작용 기능을 대인적 서비스(음성 및 문자메세지), 비대인적 서비스(오락성 및 편의서비스), 준대인적 서비스(사진 및 동영상 촬영)로 구분하여 사회적지지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22]. 그 결과 대인적 서비스와 준대인적 서비스는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비대인적 서비스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창호와 정낙원(2014)은 소셜 미디어의 형태와 교량적 사회자본(정보공유 및 교류)과 결속적 사회자본(결속력 및 사회적지지)과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방형 소셜미디어(이용자의 자유로운 참여 가능)는 교량적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반면, 폐쇄형 네트워크서비스(친한 사람과의 연결망)는 결속적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사회적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3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요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노년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논의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25].

2.3.1 선행연구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Fernández-Ballesteros(2002)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결과, 노년기 사회적 지지는 건강상태, 정서적 안녕, 삶의 만족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Rambod와 Rafii(2010)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건강상태 만족도, 사회 경제적 만족도, 정서적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다음으로 국내연구인 김정엽(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소 여성 노인의 경우 가족의 지지와 기타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8]. 강양희(2016)는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년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함께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9].

2.4 소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와 사회적지지 등 직접적인 연관성을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가 삶의 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 정밀히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20]. 즉,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기반으

로 관련 정보 및 활동을 공유하여 기존의 사회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5,24], 상대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경우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와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는 모바일과 PC 형태로 구분하여 어떠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였을 때 더 효과적인지 비교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PC 및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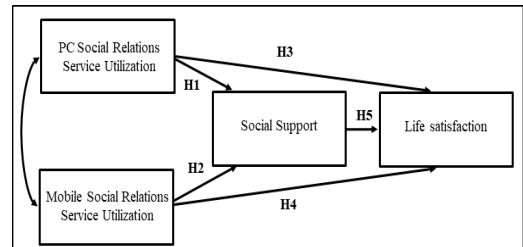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먼저,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Best와 Krueger(2006)은 온라인 기반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으며 [4], Ellison 외(2007)는 페이스북 사용과 사회자본이 강력한 연관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 중·고령자의 PC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Narkwilai 외(2015)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과 삶의 만족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2], 강보라 외(2014)는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를 포함하는 정보활동이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9].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중·고령자의 PC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로 Fernández-Ballesteros(2002)는 노년기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6], Rambod와 Rafii(2010)는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27]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Valenzuela 외(2009)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Valkenburg 외(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를 활발하게 이용할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을 보유하여, 이는 정서적 안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즉, 온라인 사회관계서비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가 추가되면 그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PC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7.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2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7년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만 7세 이상의 전국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화에 취약한 계층인 중·고령자,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자 추출방법은 광역지자체별로 층화확률비례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대상자와 면접원이 1:1 대면 조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실태조사는 시계열 조사로 매년 시행되며,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국내 정책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먼저 만 55세 이상의 중·고령층 2,300명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중·고령자 2,300명 중 목록별 결측치 제거 방식(list wise deletion)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중·고령자를 제외하고 1,48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3.3 분석변수

3.3.1 독립변수 :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PC, 모바일)

독립변수인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이 측정한 것과 같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메신저,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하는 총 5가지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PC와 모바일을 기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PC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는 데스크탑과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를 통해 5가지의 사회관계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였는지 측정하였다. 두 번째 모바일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의 경우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5가지의 사회관계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였는지 측정하였다. PC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모바일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는 모두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측정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이용 안한다 ~ 자주이용한다)로 측정하였다.

3.3.2 매개변수 : 사회적 지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중·고령층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으로 2017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총 11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내 주변

에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내 가족은 나를 도우려 애쓴다”, “나는 가족에게서 내가 필요로 하는 감정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내 친구는 나를 도우려 애쓴다”, “나에게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3.3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Diener 외(198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0]. 척도는 총 5문항으로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PC 및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변수의 특성 및 왜도, 첨도 값 기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변수의 측정방법의 신뢰도 및 수렴,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넷째, Amos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PC 및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경로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의 Z검증 방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31].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 중 여성이 52.7%(784명)로, 남성(47.3%, 704명)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연령은 62.0세이며, 지역의 비율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중·고령자가 75.1%(1,118명)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자의 비율인 24.9%(370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55.4%(824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자(24.1%, 358명), 초등학교 졸업자(10.8%, 161명), 대학교 졸업 이상(9.7%, 145명)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여부의 경우 2인 이상 동거가구의 경우 91.9%(1,368명), 독거가구는 8.1%(120명)으로 동거가구가 독거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자가 66.3%(987명), 미취업자가 33.7%(501명)로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Total(n=1,488)
Gender	Male	N(%)	704(47.3)
	Female	N(%)	784(52.7)
Age		Mean(standard deviation)	62.0(5.8)
residence	Urban	N(%)	1,118(75.1)
	Rural	N(%)	370(24.9)
Education	Primary school ≥	N(%)	161(10.8)
	Middle school	N(%)	358(24.1)
	High school	N(%)	824(55.4)
	≤ University	N(%)	145(9.7)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N(%)	120(8.1)
	Living Together	N(%)	1,368(91.9)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N(%)	987(66.3)
	Unemployment	N(%)	501(33.7)

4.2 연구대상자의 주요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C 기반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 수준의 경우 4점 만점의 전체 평균 1.28점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 수준의 경우 4점 만점의 전체 평균 2.01점으로 PC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보다 활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의 전체 평균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의 경우 7점 만점의

전체 평균 4.13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0.35 \sim 1.30$, 첨도 $0.17 \sim 5.15$ (왜도 = 2점 이상, 첨도 = 7점 이상의 경우 비정규분포임)로 기준 값 이내에 값을 가지고 있어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

Table 2. Main Variable Characteristics (n=1,488)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PC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1.28	0.56	1.30	5.15
Mobil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2.01	0.66	0.91	0.36
Social Support	3.12	0.38	-0.35	0.21
Life Satisfaction	4.13	0.92	0.01	0.17

4.3 측정 변수의 타당도 검증

4.3.1 주요변수의 수렴타당성

본 연구모형에 투입되는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수렴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Cronbach's alpha값을 확인하여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값은 0.722에서 0.899 사이의 값으로,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라고 보는 0.6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변수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 분산 추출 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합성신뢰성(CR: Composite Reliability)을 검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수 평균 분산 추출 값을 확인한 결과 0.505에서 0.801 사이의 값으로, 0.5이상의 값을 가져 권장 기준 값보다 모두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다음으로 합성신뢰성을 확인한 결과 0.822에서 0.953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어, 권장기준 값인 0.8보다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Item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onbach's alpha	AVE	CR
PC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PC1	0.809		0.899	0.801	0.953
	PC2	0.771	0.023			
	PC3	0.865	0.027			
	PC4	0.809	0.027			
	PC5	0.718	0.024			
Mobil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Mobile1	0.250		0.722	0.505	0.822
	Mobile2	0.609	0.385			
	Mobile3	0.854	0.429			
	Mobile4	0.768	0.400			
	Mobile5	0.722	0.293			
Social Support	Support1	0.589		0.851	0.585	0.939
	Support2	0.625	0.066			
	Support3	0.563	0.064			
	Support4	0.569	0.066			
	Support5	0.537	0.068			
	Support6	0.574	0.063			
	Support7	0.546	0.071			
	Support8	0.532	0.066			
	Support9	0.565	0.064			
	Support10	0.677	0.063			
	Support11	0.647	0.058			
Life Satisfaction	LS1	0.848		0.887	0.563	0.865
	LS2	0.838	0.026			
	LS3	0.787	0.026			
	LS4	0.745	0.027			
	LS5	0.696	0.03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Discriminant Validity)

Variables	PC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Mobil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PC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1*			
Mobil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0.602* (0.362)**	1		
Social Support	0.121 (0.015)	0.194 (0.038)	1	
Life Satisfaction	0.151 (0.023)	0.235 (0.055)	0.409 (0.167)	1

* Correlation Coefficient, ** Squared valu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34]. 즉, 본 연구모형에 투입되는 모든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일관성도 높아 우수한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4.3.2 주요변수의 판별타당성

우수한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다음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전에 각 주요변수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Table 4를 보면,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보다 낮은 상관계수(0.121~0.602)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는 각 변수의 평균 분산 추출 값이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32]. 본 연구의 평균 분산 추출 값은 0.505에서 0.80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Table 3), 상관계수 제곱 값은 0.015에서 0.362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평균 분산 추출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4.4 연구모형 검증 결과

4.4.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먼저 본 연구의 매개모형을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으로 구분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검증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를 검증해야 하며, 이러한 적합도 지수는 다양하다. 홍세희(2000)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 중 CFI와 TRI, RMSEA 지수를 연구모형의 간명성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표본크기에도 민감하지 않아 활용도가 높은 지수로 제안하였다[35]. 구체적으로 검증 기준을 확인해보면 먼저 CFI와 TRI 지수는 0.9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일반적으로 좋은 모형 적합도를 가진다고 판단한다[36-38]. RMSEA 지수는 0.5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0.8보다 작은 값을 가져도 괜찮은 적합도라고 판단한다[35,39].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확인결과, TLI 0.924, CFI 0.932, RMSEA 0.053로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을 확인한 결과, TLI 0.922, CFI 0.930, RMSEA 0.054로 경쟁모형 또한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개의 연구모형은 내제된 연구모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X^2 검증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을 선정하였다[11].

Table 5. Results of the goodness-of-fit index

Model	X^2	df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1513.763	290	0.924	0.932	0.053
competition model	1559.327	292	0.922	0.930	0.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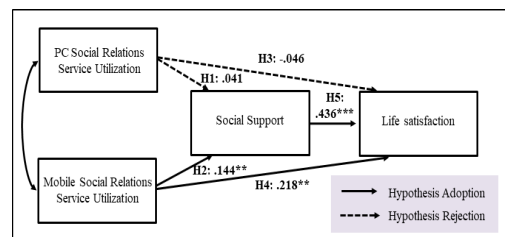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Table 6. 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	Result
H1	PC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	Social Support	0.041	0.023	0.027	0.855	Reject
H2	Mobil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	Social Support	0.144**	0.220	0.079	2.785	Adopt
H3	PC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	Life Satisfaction	-0.046	-0.076	0.071	-1.066	Reject
H4	Mobil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	Life Satisfaction	0.218***	1.003	0.229	4.387	Adopt
H5	Social Support	→	Life Satisfaction	0.436***	1.310	0.098	13.435	Adopt

$\chi^2=229.60(89)$, CFI=0.972, TLI=0.962, RMSEA=0.05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Results of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obel Test)

hypothesis	Path		b	SE	Indirect effect (①×②)	Z
① X → M	Mobile Social Relations Service Utilization	→ Social Support	.220	.079	0.288	2.73**
② M → Y	Social Support	→ Life Satisfaction	1.310	.098		

** p < .01

4.4.2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설 2, 4-5, 7를 채택하였다(Table 6-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바일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경로계수=0.144, p<0.01)와 삶의 만족도(경로계수=0.218, p<0.0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436, p<0.001). 즉, PC에 기반한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바일에 기반한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관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약 없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아야 하는데 PC보다는 모바일이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나 모바일은 PC보다 다양한 기능과 용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모바일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의 Z값을 확인하였다(Table 7)[31]. 그 결과 Z값이 2.73으로 1.96보

다 높아, 모바일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요약과 제언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PC 및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 1,48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사회적 지지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2, 4-5

가 채택됨에 따라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를 Sobel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바일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 효과를 가진다고 밝혀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는 사회적 지지가 함께 연결되어야 중·고령자의 삶까지 효과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관련 활용 교육 또는 이용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고령자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삶의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의 강의 중심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멘토링 등의 동료를 활용한 사회적 지지 중심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 보조교육 또는 활용 실습을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모바일 기반 사회적 서비스 활용을 증진시키는 한편,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또한 크게 증가될 것이다.

둘째, 모바일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의 결과에 비해 PC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가 사회적지지 및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결과를 통해 중·고령자의 삶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관계 서비스 도구는 PC보다는 모바일이 더 적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고령자의 시력과 작은 글자 크기로 인해 많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컴퓨터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도구는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모바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화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패드 등을 함께 교육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를 통하여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존에는 많은 연구가 실시되지 않은 모바일 및 PC기반 사회관계서비스 활용도와 사회적지지가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그 동안 온라인 사회관계서비

스 활용도로만 연구되었던 내용을 모바일과 PC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은 도구를 선별해내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의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횡단적 차원에서만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 변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변인들에 의한 영향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사회관계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ISTEP. (2020). *Science and Technology Joint Emergency Action Series "The future that Corona 19 will change beyond the height of the crisis in the Corona 19 crisis: Crisis and challenge"*. <https://youtu.be/lcNm0Fbi-E>
- [2] Narkwilai, M., Funilkul, S., & Supasitthimethee, U.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Thai elderly's intention to use social network for Quality of Life: A case study LINE application. In 2015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Electrical Engineering(ICITEE), 593-598. DOI : 10.1109/ICITEED.2015.7409016
- [3] Y. K. Cho, Y. M. Baek, & B. Y. Kim. (2014). How and Why Does SNS-based Interaction Promote Perceived Social Support?: Focusing on Types of SNS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2(2), 5-31. UCI : I410-ECN-0102-2015-300-000393895
- [4] Best, S. J., & Krueger, B. S. (2006). Online interactions and social capital: Distinguishing between new and existing ti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4(4), 395-410. DOI : 10.1177/0894439306286855
- [5] Valkenburg, P. M., Peter, J., & Schouten, A. P. (2006). Friend networking si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s' well-being and social self-esteem. *CyberPsychology & Behavior*, 9(5), 584-590. DOI : 10.1089/cpb.2006.9.584
- [6]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DOI :10.1111/j.1083-6101.2007.00367.x
- [7] Brooke, J., & Jackson, D. (2020). Older people and COVID-19: Isolation, risk and ageism.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20(29), 2044-2046. DOI : 10.1111/jocn.15274

- [8] Victor, C. R., & Bowling, A. (2012). A longitudinal analysis of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in Great Britain. *The Journal of Psychology, 146*(3), 313-331. DOI : 10.1080/00223980.2011.609572
- [9] B. R. Kang, H. S. Kim, & M. S. Lee. (2014).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Online Information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159-175. DOI : 10.4275/KSLIS.2014.48.2.159
- [10] J. M. Ra, & H. J. Han. (2015).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martphone Applic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1*(1), 219-248. DOI : 10.18859/ssrr.2015.02.31.1.219
- [11] J. S. Lim, H. J. Cho, & Y. J. Cho. (2014). A Longitudinal Model Study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Middle and Older adults(over 50 years and over)-Focusing on the mediate effects of the preparation agency for old 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ulti-group analy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33*(1), 181-207.
- [12] S. J. Sim. (2018). Basic research on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Daejeon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13] D. H. Kim, K. S. Ryu, & S. W. Lee. (2011). Factors Determining the Old's Happiness : Based on Public and Private Pension. *The Journal of Risk Management, 22*(1), 97-123. UCI : I410-ECN-0102-2012-350-002361706
- [14] T. K. Yoo, & J. H. Ban. (2012). A Study on the Change in Quality of Life Among Mature-aged i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8*(2), 349-372.
- [15] M. J. Jun, & S. W. Moon. (2016).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in Korea -A Comparison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8*(2), 153-171. DOI : 10.22885/KRDA.2016.28.2.153
- [16] Smith, A. E., Sim, J., Scharf, T., & Phillipson, C. (2004).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amongst older people in deprived neighbourhoods. *Ageing & Society, 24*(5), 793-814. DOI:10.1017/S0144686X04002569
- [17] Henchoz, Y., Botrugno, F., Cornaz, S., Büla, C., Charef, S., & Santos-Eggimann, B. (2017).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comparing three cut-offs on the excellent-to-poor spectrum. *Quality of life research, 26*(2), 283-289. DOI : 10.1007/s11136-016-1394-3
- [18] W. S. Yoo, & H. J. Son. (2012). Research on Relationships between Internet Use and the Elderly's Life Qual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4), 235-244. DOI : 10.5392/JKCA.2012.12.04.235
- [19] Kossakowski, J. J., Epskamp, S., Kieffer, J. M., van Borkulo, C. D., Rhemtulla, M., & Borsboom, D. (2016). The application of a network approach to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ntroducing a new method for assessing HRQoL in healthy adults and cancer patients. *Quality of Life Research, 25*(4), 781-792. DOI : 10.1007/s11136-015-1127-z
- [20] M. H. Seo. (2017). Influences of SNS Use on Life Satisfaction via Upward Social Comparison, Relative Deprivation and Underestimation of Economic Statu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3*, 72-95. DOI : 10.46407/kjci.2017.06.83.72
- [21]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875-901. DOI : 10.1111/j.1083-6101.2009.01474.x
- [22] H. J. Yun. (2009). College Students Mobile Phone Usage Affecting their Social Network and Perceived Socia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3*(5), 173-216. UCI : G704-000045.2009.23.5.002
- [23] C. H. Lee, & N. W. Jung. (2014).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and Motive on Social Capital: Comparison of Open/Closed Social Medi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65*, 5-26. UCI : G704-000837.2014.65.1.004
- [24] Pecino, R. M., Lera, M. J., & Martinez-Pecino, M. (2012). Active seniors and mobile phone interac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0*(5), 875-880. DOI : 10.2224/sbp.2012.40.5.875
- [25] Y. S. Park, & J. Y. Song. (2012).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Life of the old man with a chronic diseas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17*, 79-96. UCI : G704-SER000010583.2012.17.17.003
- [26] Fernández-Ballesteros, R. (2002).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people in Spain. *Journal of Social Issues, 58*(4), 645-659. DOI : 10.1111/1540-4560.00282
- [27] Rambod, M., & Rafii, F. (2010).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in Iranian h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2*(3), 242-249. DOI : 10.1111/j.1547-5069.2010.01353.x
- [28] J. Y. Ki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atisfaction of Life among the Women Elderly. *Journal of Welfare Administration, 20*(2), 29-62.
- [29] Y. H. Kang. (2016).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344-353.
DOI : 10.5392/jkca.2016.16.02.344

- [30]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OI : 10.1207/s15327752jpa4901_13
- [31]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DOI : 10.2307/270723
- [32]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DOI : 10.1177/002224378101800104
- [33]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DOI : 10.1007/BF02723327
- [34]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Validity. *Psychometric theory*, 3, 99-132.
- [35] S. H. Hong.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36]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DOI : 10.1007/BF02291170
- [37]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
DOI : 10.1037/0033-2909.88.3.588
- [38] Widaman, K. F. (1985). Hierarchically nested covariance structure models for multitrait-multimethod data.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9(1), 1-26.
DOI : 10.1177/014662168500900101
- [39] Browne, M. W., Cudeck, R., Bollen, K. A., &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엄 사 랑(Sa-Rang Um)

[정회원]



- 2013년 2월 :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사)
- 2018년 2월 : 경희대학교 노인학과(노년학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 기술활용, AgeTech-Service, 이동성, 사회적 관계망, 노쇠
- E-Mail : umlove91@khu.ac.kr

신 혜 리(Hye-Ri Shin)

[정회원]



- 2008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객원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보장, 사회정책, 노인복지, 장기요양, 노인돌봄, AgeTech-Service
- E-Mail : ltc.shinhyeri@gmail.com

김 영 선(Young-Su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학사)
- 1997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 석사)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고령자 기술수용(senior technology adoption), AgeTech-Service, 돌봄기술(care technology), 고령화정책, 건강노화서비스, health literacy
- E-Mail : ysunkim@khu.ac.kr